

살롬.

동부 아프리카 선교회의 탄자니아 선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 합니다.

11 월도 끝 날이 다가오니 괜시리 마음이 더 바빠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아마도 아직도 올 해 안에 마무리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럴때면 '내 아버지께서 일 하시니 나도 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찍질 해 봅니다.

@ 탕가 신학교 소식;

제 14 회 졸업식(22 명)이 금요일(21 일)에 있습니다.

졸업식에 앞서 갖는 파송의 밤 행사도 지난 수요일 밤 은혜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제 신학교는 졸업식 후 곧바로 6 주간의 방학이 시작 됩니다.

@ 4 년제 신학 Degree 과정 소식;

이 과정은 수년 전부터 기도 해 왔던 기도제목인데 저를 도와 신학교 학장으로 수고하시는 George

Nywage 목사님이 합류 하면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Global University**

(GU)안에 있는 신학부의 도움을 얻어 시작하게 되며 학위 역시 GU 에서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모든 준비과정이 끝나는 대로 **2015 년 5 월 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도 부탁 드립니다.

@ 탕가 신학교 Staff 대학원 과정 입학;

이 계획은 탕가 신학교의 교수 양성을 위한 계획으로서 2 년 과정의 석사 코스에 Staff 를 입학시키는 계획 입니다.

2 년전에 시작한 탕가 신학교 3 회 졸업생 William

Nango 목사님은 무사히 이 과정을 마치고 탕가 신학교 교무과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탕가 신학교 1 회 졸업생인 Samuel

Mafaru 목사님(현재 입학과장 및 학생과장)이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에 소요되는 1년 학비가 US

\$2,000.인데 그 금액은 지금까지 저 개인의 생활비에서 후원을 했으나 이제는 좀 벅찬 감이 있어 후원금 모금에 대하여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 리빙 스톤 중학교 소식:

1). 지금 리빙 스톤 학교는 2학기 종강시험 열기가 학교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1학년과 3학년은 이번 토요일 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학기말 시험을 치르고 방학에 들어가며, 이미 학기말 고사를 치른 2학년들은 다음주 월요일 부터 한 주간 국가고시를 치른 후 방학이 시작 됩니다.

2). 그리고 11월 29일에는 다른 과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어,수학을 미리 보충 받고 새로운 학교 생활 적응을 도움 받기 위해 특별히 소집되는 2015년 신입생들이 등록을 하는 날 입니다. 이 과정은 2주이며 그 2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 하게됩니다.

3) 단기 컴퓨터 헌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어 구사(사용)에 큰 문제가 없는 분으로서 내년 1월 부터 3-

4개월 혹은 1년정도 컴퓨터 교사로 리빙 스톤 학교에서 헌신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 박선교사 부부 한국 방문 계획:

앞으로 완공 될 과학관에서 사용 할 실험 도구들과 그 밖의 다른 필요물들을 미리 준비 하기 위하여 3주 일정으로 고국을 방문 하게 됩니다. 이곳의 바쁜 일들로 인하여 아직 한국방문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일들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것을 믿습니다. 컨테이너를 준비할 경비가 마련되고 또 그 일을 위해 직접적으로 몸 바쳐 헌신하게 될 한국의 선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윤여환 장수정 선교사 사역지 이동 소식:

지난 1년동안 함께 생활 해 오던 윤여환 장수정 선교사 부부가 12월 중에 다음 사역지인 Tabora 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곳가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 할때에

주님의 역사 하심이 안,밖으로 크게 열매 맺고 건강과 안전한 사역지가 되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박 영훈(미국 명 Jonathan Park) 형제 사역지 헌신.

영훈 형제는 박선교사의 장남으로 1995 년 초등학교 5 학년때 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아프리카에서 학업을 하였으며 이후 대학과정을 미국에서 마치고 약 9 년간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최근 몇년 기도 가운데 2-3 년 선교지에서 헌신 하고자 결심하고 지난 달 말에 9 년 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내년 1 월 초에 사역지에서 동역하기 위해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영어(말하기)를 가르칠 계획 이지만 동시에 본인 자신의 아프리카에서의 기숙사 생활에 대한 경험을 잘 살려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도 제목:

1. 리빙 스톤 학생들의 시험을 위해서
2. 최명철 선교사님 부부의 미국 방문과 박선교사 부부의 한국 방문을 위해서
3. 윤여환 선교사 부부의 사역지 이동을 위해서
4. 신학교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5. 리빙 스톤 학교의 신입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해 주세요.

올 해도 온 가족이 복된 추수감사절 보내시길 축복 합니다.

2014 년 11 월 20 일

박선교사 부부드림